# 도심 속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인기

### 광주시 푸른도시사업소
### 사직공원·시민의 숲 2곳 운영
### 4월 한달간 어린이 853명 참여
### 이달 전 연령 프로그램도 운영

광주의 한 유치원 어린이들이 최근 남구 사직공원에서 진행하는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식물을 관찰하고 있다.

광주시가 미래 세대인 지역 어린들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도심 속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15일 광주시 푸른도시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어린이 대상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4월 한달간 23개 유치원·어린이집에서 853명의 어린이가 유아숲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달 들어서도 유치원·어린이집들의 체험 참여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푸른도시사업소의 설명이다.

도심 속에서 숲을 체험할 수 있는 유아숲 프로그램은 남구 사직공원과 북구 시민의 숲에 조성돼 있는 유아숲체험원에서 4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참가 어린들은 숲 체험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고 자연 속에서 창의성과 생태감수성도 키우고 있다.

유아숲체험원은 유아들이 한곳에 모일 수 있는 대피소와 밧줄·나무를 활용한 놀이시설, 식물관찰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사직공원과 시민의 숲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푸른도시사업소는 이달 하순부터는 '도시의 허파인 사직공원에서 숨을 만나다'를 제목으로 어린이는 물론 전 연령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숲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직공원을 거닐며 명상 등을 하는 체험형으로 진행된다.

푸른도시사업소는 숲에서의 다양한 활동이 유아의 면역력 증진과 운동감각을 높여주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또 숲체험 활동이 어린이들의 사회성과 창의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홍보하는 등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유아숲체험을 희망하는 단체 등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과(062-613-6467)나 메아리숲생태연구소(062-375-1729)로 문의하면 된다.

정주형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 요즘 어린이와 시민들이 숲 체험을 통해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안전한 숲 체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가족과 함께 과학문화 행사 즐기세요

### 광주시·국립광주과학관
### 천문 캠프·창작경진대회 운영

광주시가 국립광주과학관과 함께 코로나19 일상회복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과학 전시·문화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매주 일요일 국립광주과학관 상상홀에서 일상과 연계한 과학문화행사가 열리며, 과학체험 연극과 벌룬아트(풍선공연) 등을 진행한다.

격주로는 시민이 모이는 공원으로 직접 찾아가는 '공원 속 작은과학관' 행사도 개최한다. 오는 21일과 6월 11일, 25일에는 우치공원에서 태양관측, 로봇댄스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또 6월 4일에는 과학관 거울못 일원에서 '제3회 거울못 모형배 창작 경진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에서는 호남권역 초·중등학생 2인 1팀과 지도교사 1인이 함께 참여하며, 공통으로 제공하는 재료를 이용해 모형배를 만들고 과학관 거울못에서 실제 대결을 펼친다.

체험 행사와 함께 다양한 강연과 교육 프로그램도 가득하다. 18일에는 '빛의 과학' 주제로 과학기술원 석희용 물리광과학과 교수의 강연이 열리며, 6월15일에는 '미래를 바꾸는 유전자 가위' 주제로 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이상화 박사가 강연을 벌인다.

가족 단위로 1박을 하며 특별천문현상을 관측하고 별자리 설명과 천문학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오성취합 천문가족캠프'도 6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운영된다.

국립광주과학관 과학문화 행사에 대한 세부 내용 및 행사일정 등은 국립광주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과학문화확산실(062-960-6127)로 하면 된다.

오동교 광주시 미래산업정책과장은 "어린이·청소년·성인 등 모든 시민이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과학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도시철도·광주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활성화 협약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윤진보)와 광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재규)는 최근 광주시 서구 마륵동 공사 본사에서 ESG기반 사회공헌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시민 행복 지수 증진을 위한 'ESG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복지증진과 나눔 문화조성에 앞장서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공사와 센터는 자원봉사 정보교류,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 사업 발굴, ESG 적극 추진 및 관련 협력 체계 구축 등 지역 발전과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극락강역 폐사일로 리모델링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제이포 건축사사무소 작품
### 이달중 설계계약·12월 설계완료
### 특색있는 복합문화시설 조성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극락강역 폐사일로 리모델링 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으로 제이포 건축사사무소의 작품〈사진〉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극락강역 폐사일로 문화재생 리모델링 사업'은 우리나라 가장 작은 꼬마역인 광산구 신가동 '극락강역' 부지 내에 흉물로 방치된 현대시멘트 사일로(시멘트 보관 창고)를 개·보수하고, 광주시의 독특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이다. 세부시설로는 전시공간, 시민활동공간, 전망공간, 편의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설계공모전에는 총 8개 작품이 접수돼 관내·외 대학교수, 건축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응모업체 발표와 질의응답, 심사위원 간 토론을 거쳐 제이포 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작은 사일로를 상징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 제안, 관람객 진입 동선과 오픈 전시 계획의 연계성 우수, 구체적인 구조 보강 계획 제안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설계공모 심사는 광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됐다. 종합건설본부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를 생중계한 것은 지난 3월에 처음 시작해 이번이 네 번째다.

공공건축물 심사과정 공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 종합건설본부는 이달 중으로 설계계약 하고, 12월까지 설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최원석 종합건설본부 건축설비부장은 "올해 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장기간 방치된 폐사일로를 활용해 특색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드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사업 추진

### 문체부 공모 선정 2억7천만원 확보
### 마이스 인재양성·국제회의 유치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2년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7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는 마이스 전담 조직인 광주관광재단, 국제회의시설 운영 주체인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총 4차례 사업 발굴 회의를 거쳐 8개 사업을 발굴하고, 3월 문체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최종 선정됐다.

주요 사업은 ▲국제회의하기 좋은 도시 홍보를 위한 국내외 마이스(MICE) 매체 대상 홍보 사업 ▲지역 내 마이스(MICE) 인재 육성을 위한 광주 마이스(MICE) 사관학교 운영 ▲국제표준화기구 MICE 적합기준 인증 획득을 위한 전문회의시설 및 집적시설 ISO 20121 인증 획득 사업 ▲참관객 편의성 증진 위한 키오스크 설치 사업 등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3년간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사업을 통해 상무지구의 또 다른 이름 '국제회의하기 좋은 공간' 광주 마이스 파크(GJ MICE Park) 브랜드 이미지를 개발하고, 국내외 마이스 도시로의 광주시 홍보활동을 통한 글로벌 인지도 제고, 광주시 관광인프라를 연계하는 정보제공 플랫폼 광주마이스파크 앱 및 홈페이지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김성배 광주시 관광진흥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도 호남권 대표 마이스 도시로서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마이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회의 시설을 중심으로 숙박, 쇼핑, 공연 등 연계 산업의 시설 집적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회의 복합지구 5곳을 지정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

상담문의 010-3733-3933